

1분기 광주·전남 금융시장 ‘활기’…대출·예금 모두 늘었다

‘기업·가계대출 확대’ 여신 1조3천억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 증가폭 축소
수신 3조8천억 ↑ …CD 등 시장성 증가

2025년 1분기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은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던 예금은행의 대출이 기업과 가계 부문에서 동시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예금은행 수신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1조3천253억원 늘어 전 분기(+1천12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여신(與信)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출’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수신(受信)은 고객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예금이 대표적인 예다.

여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예금은행 여신은 2024년 4분기 5천419억원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에 1조1천48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늘어난 결

과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 분기 3천321억원에서 올해 1분기 8천31억원으로 증가세가 늘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전 분기 대비(1천609억원→3천15억원) 크게 올랐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증가폭은 축소됐다.

비은행 여신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6천4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천205억원으로 줄었다.

수신 부문 역시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지역 금융기관의 총 수신액은 3조8천189억원 늘어 전 분기 증가액(1조5천96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금은행 수신은 전 분기 509억원 감소에서 1분기 9천553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이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신도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늘어나며 증가폭이 전 분기 1조6천563억원에서 2조8천636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예금(+4천654억원→+3천502억원)은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정은솔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투표소와 개표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석촌변전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대선 투표소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

8천600여명 비상근무…24시간 대응

한국전력이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

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 UPS(무정전 전원 장치)를 비상시 자동 투입하게 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또한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의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진행했으며 지난 4월23일부터 5월20일까지 전국의 1만8천388곳의 선거 관련 시설(투표소,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전기설비의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한전은 선거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에 총 8천558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안태호 기자



전남농협,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통근버스 이용 직장인 간편 조식 나눔

농협중앙회 농협전남본부는 2일 “최근 ‘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남약정류소(도청방면)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의 아침식사 결식율이 50% 전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쌀 간편 조식(주먹밥, 김밥 등) 나눔을 통

해 쌀 가공식품 소비촉진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국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하는 데 상생효과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뿌리산업 고용지원 확대 필요”

근로자 안심 현장 중심 정책 설계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등 강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근로자 대상 주거비·건강검진비 지원 분야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뿌리 기업의 인력난과 이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정규직 채용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복지시설 개선, 주거비, 건강검진비 등 근로자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근로자 주거비(월 최대 30만원·최대 6개월)와 건강검진비(1인당 최대 30만원) 항목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 문의가 집중되며 조기 마감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뿌리산업 현장에서 ‘거주안정’과 ‘건강관리’는 장기근속 유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을 말한다.

광주는 자동차, 가전, 금속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수요 둔화·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광주 기아자동차 협력사 산재 사망 사고, 주요 부품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사례는 현장 내 인력 부족과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현재 뿌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람이 안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업처럼 복지·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고용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진정한 고용 유지가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반영과 유관 기관 간 연계사업 발굴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업 참여를 접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일자리사업부(062-716-350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8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昧(맛 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美(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迷(미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尾(끝 미) 해남의 땅끝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숭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광고문의 : 062)650-2099